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유형과 영향 요인 탐색: 장애수용, 삶의 만족도 차이를 중심으로

연은모¹, 최효식^{2*}

¹연남대학교 교양학부, ²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Exploring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ults with Disabilities's Self-Esteem: Focused on Disability Acceptance and Life Satisfaction

Eun Mo Yeon¹, Hyo-Sik Choi^{2*}

¹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및 장애수용,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2차 웨이브 1차(2016년)~4차(2019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4년 동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선형변화모형에 기초했을 때 변화 궤적은 3개의 개별적인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계층 분류에 인구사회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관계적 변인의 하위 요소 중 성별, 장애 정도, 학력, 경제활동상태, 배우자 유무, 차별경험,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잠재계층에 따라 장애수용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으며, 장애수용의 초깃값과 4년 동안의 장애수용 수준이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순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동일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으며,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과 장애수용, 삶의 만족도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self-esteem of adults with disabilities and its predictors. The study also looked at how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relate to disability acceptance and life satisfaction. The study used the 2nd wave of PSED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conduct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from 2016 (1st) to 2019 (4th),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growth mixture model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self-esteem of adults with disabilities had increased over four years, and their self-esteem was distinguished by three distinct latent classes. Second, the demographics, socioeconomics, and social-relational factors such as gender, level of disabilities, education, economic activeness, existence of spouses,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classes. Third, disability acceptance and life satisfaction of adults with disabilities were distinguish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latent groups. Specifically, adults with disabilities who accept their disabilities quicker reported high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self-esteem of adults with disabilities was closely related to their disability acceptance and life satisfaction.

Keywords :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cceptance of Disability, Adults with Disabilities, Growth Mixture Modeling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e.ac.kr

Received April 13, 2021

Accepted August 5, 2021

Revised May 12, 2021

Published August 31, 2021

1. 서론

자신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7 재인용]은 대인관계, 일, 건강 등과 관련된 삶의 성공 및 안녕감을 예측한다[1].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완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긍정적 정서와 적응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8].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 직무만족도, 우울, 대인관계기술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2-6, 9, 10]. 또한 자아존중감은 장애수용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1, 12]와 자아존중감이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 13]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안정적인 특징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한 시점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또는 낮은) 자아존중감은 다른 시점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또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1]. 자아존중감은 전 생애에 걸쳐 변화하는 특징 또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세부터 97까지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 Orth 외[14]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16~51세까지 증가하는 패턴이며, 51~97세까지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다. 메타분석 결과 또한, 자아존중감은 4~11세까지는 증가하고, 11~15세는 안정적인 특징을 보이며, 60세까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15].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사회관계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인구사회적 변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사회관계측정이론(Sociometer Theory)'은 자아존중감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타인과의 관계의 질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관계측정이론에 따르면 자아존중감 수준은 사회적 관계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수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며[8, 16], 타인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의 수용 및 거절 경험에서 유발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은 자기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17].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 또한 차별경험[5, 10, 18], 사회 및 여가 참여[9, 13, 19], 사회적지지[20], 배우자 유무[12, 21]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장애인의 학력,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활동상태 등의 사회경제적 변인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미취업자보

다는 취업자일 때[22],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닐 때[23], 장애인 가구원의 자산이 많을수록[21],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18]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 정도 또한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성별은 대체로 여성이고[5, 21], 연령이 높을수록[21], 장애 등급이 낮을수록[12]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삶의 다양한 영역의 성공에 기여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은 개인 및 사회 모두에게 중요하다[1]. 이에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횡단자료에 기초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아존중감은 삶의 다양한 영역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변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장애수용, 삶의 만족도 간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지만, 종단적 관점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장애인(만 25세 이상)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및 장애수용,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 2) 확인된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 3)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장애수용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 4)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2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2차 웨이브 1차(2016년)~4차(2019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24]. 자아존중감의 1차(2016년)~4차(2019년) 자료에서 두 번 이상 응답한 3,51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자아존중감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1차(2016년)~4차(2019년) 4개 시점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동일한 9문항을 사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는 자아존중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Rosenberg[25]의 10문항을 사용하고 있는데, 1개 문항('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의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고 분석을 하였다.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으며, 문항은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4].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778$, 2차 $\alpha=.767$, 3차 $\alpha=.750$, 4차 $\alpha=.709$ 이다.

2.2.2 장애수용

Kaiser 외[26]의 장애수용척도(Disability Acceptance Scale; DAS) 등에 기초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1차(2016년)~4차(2019년) 4개 시점의 장애수용을 측정하는 동일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으며, 문항은 '장애 때문에 불편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4].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813$, 2차 $\alpha=.801$, 3차 $\alpha=.799$, 4차 $\alpha=.768$ 이다.

2.2.3 삶의 만족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4차(2019년) 자료의 성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8문항 중 결측치가 많은 '결혼생활', '하고 있는 일' 관련 2문항을 제외한 6문항을 활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즘 건강상태, 가족들과의 관계, 한 달 수입(또는 용돈), 친구들과의 관계, 살고 있는 곳, 여가활동과 관련된 만족도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4].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39$ 이다.

2.2.4 인구사회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관계적 변인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1차(2016년) 자료의 인구사회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관계적 변인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적 변인은 성별(남성: 0, 여성: 1), 만 연령, 장애 정도(중증: 0, 경증: 1), 중복 장애 유무(있음: 0, 없음: 1)를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인은 학력(중졸 이하: 0, 고졸: 1, 대졸 이상: 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하층: 1, 중하층: 2, 중상층: 3, 상층: 4), 경제활동상태(취업자: 0, 미취업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예: 0, 아니오: 1)을 사용하였다.

사회관계적 변인은 배우자 유무(없음: 0, 있음: 1),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차별경험 정도, 사회활동 참여 정도, 도움제공자유무(있음: 0, 없음: 0)를 사용하였다.

2.3 분석 방법

SPSS 22.0, Mplus 8.3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첫째,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방법에 기초하여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특성을 유형화하였다. 둘째,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R3STEP 보조변수(Auxiliary)를 사용하였다. 셋째, 다집단 성장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른 장애수용 변화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잠재계층 간 삶의 만족도 차이 검증을 위해 BCH 보조변수를 사용하였다[27]. 결측치 처리 방법은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성인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1차(2016년) 자료에 기초하여 제시하면, 성별은 남성 2,293명(65.2%), 여성 1,224명(34.8%), 연령은 25~29세 239명(6.8%), 30~39세 965명(27.4%), 40~49세 1,124명(32.0%), 50~59세 777명(22.1%), 60~64세 412명(11.7%), 장애정도는 중증 1,002명(28.5%), 경증 2,515명(71.5%), 중복장애 있음 120명(3.4%), 없음 3,397명(96.6%)이다. 학력은 중졸 이하 942명(26.8%), 고졸 1,644명(46.7%), 대졸 이상 931명(26.5%)이며, 취업 유무는 취업자 1,874명(53.3%), 미취업자 1,643명(46.7%)이다. 배우자 없음 1,734명(49.3%), 있음 1,783명(50.7%), 도움제공자 있음 1,035명(29.4%), 없음 1,355명(38.5%), 무응답 1,127명(32.0%)이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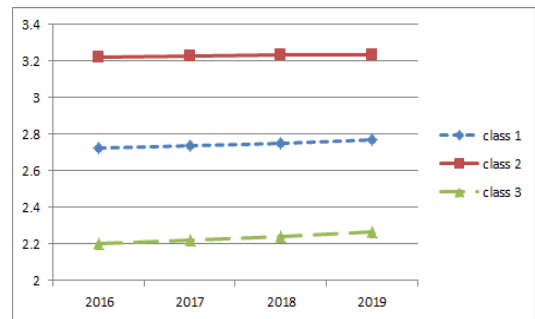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2,293	65.2
	Female	1,224	34.8
Age	25~29	239	6.8
	30~39	965	27.4
	40~49	1,124	32.0
	50~59	777	22.1
	60~64	412	11.7
Severity of disability	Significant	1,002	28.5
	Mild	2,515	71.5
Multiple disabilities	Yes	120	3.4
	No	3,397	96.6
Education	> Middle school graduate	942	26.8
	High school graduate	1,644	46.7
	< University graduate	931	26.5
Employment	Employed	1,874	53.3
	Unemployed	1,643	46.7
Existence of spouses	No	1,734	49.3
	Yes	1,783	50.7
Existence of helper	Yes	1,035	29.4
	No	1,355	38.5
	No response	1,127	32.0

3.2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이차곡선변화모형의 경우 1차항과 2차항의 상관계수가 -.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어[28] 본 연구에서는 무변화모형보다 적합도가 더 좋은 선형변화모형을 기초하여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선형변화에 기초한 성장혼합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잠재계층의 수가 2개, 3개, 4개, 5개인 모형을 비교하였으며,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의 평균 사후확률의 범위는 .863~.909이다.



* Class 1: mid-level increased group, Class 2: high-level unchanged group, Class 3: low-level increased group

Fig. 1. Profile plot of 3-class models

Table 2.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Model	χ^2	df	CFI	TLI	RMSEA (90% C.I.)	SRMR	Mean			Variance		
							I	L	Q	I	L	Q
No growth	116.741***	8	.974	.980	.062 (.052-.072)	.084	2.783***			.094***		
Linear	64.368***	5	.986	.983	.058 (.046-.071)	.049	2.761***	.014***		.105***	.003***	
Quadratic	6.470*	1	.999	.992	.039 (.015-.071)	.008	2.747***	.054***	-.013***	.096***	.015	.002

* $p < .05$, ** $p < .01$, *** $p < .001$, I: Intercept, L: Linear, Q: Quadratic

Table 3. Tests of unconditional models with 2-5 classes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2	12364.980	12420.468	12391.871	.646	.0000	.0000	.0000	48.2	51.8			
3	11215.551	11289.535	11251.406	.777	.0000	.0000	.0000	68.8	19.6	11.6		
4	10804.448	10896.929	10849.266	.724	.0000	.0000	.0000	37.0	4.8	47.9	10.3	
5	10698.654	10809.631	10752.436	.723	.0028	.0000	.0000	1.0	38.7	44.0	8.6	7.6

각 잠재계층의 전반적인 특징에 기초하여 잠재계층을 명명하였다. 첫 번째 잠재계층인 ‘중수준 증가 집단’은 2,419명(68.8%)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2.723($p < .001$), 선형변화율 .015($p < .001$)이다. 두 번째 잠재계층인 ‘상수준 무변화형 집단’은 689명(19.6%)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3.220($p < .001$), 선형변화율 .006($p > .05$)이다. 세 번째 잠재계층인 ‘하수준 증가형 집단’은 409명(11.6%)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2.201($p < .001$), 선형변화율 .021($p < .01$)이다.

3.3 잠재계층 분류 영향 요인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 분류에 인구사회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관계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R3STEP 보조 변수를 활용한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4.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1	2.723*** (.023)	.015*** (.003)
2	3.220*** (.026)	.006 (.007)
3	2.201*** (.047)	.021** (.008)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여성이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이며, 배우자가 있고, 일생생활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많을수록 잠재계층 1보다는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중증 장애이고,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미취업자이며, 배우자가 없고, 일생생활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사회활동 참여

Table 5. Three-step results for antecedents of classes

Reference group: Class 1(mid-level increased group)				
Variable	Class 2		Class 3	
	Estimate	S.E.	Estimate	S.E.
Gender(male: 0)	.405*	.206	-.271	.185
Age	-.013	.011	-.014	.01
Severity of disability(significant: 0)	.168	.254	-.461*	.197
Multiple disabilities(yes: 0)	-.325	.701	.164	.338
Education	.428*	.168	-.716***	.165
Socioeconomic status	.181	.163	-.272	.183
Economic activeness(employed: 0)	-.844***	.251	1.805***	.334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cheme(yes: 0)	.65	.424	-.338	.222
Existence of spouses(no: 0)	.584*	.227	-.777**	.226
Discrimination experience	-.707***	.14	.393**	.115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592***	.169	-.843***	.131
Existence of helper(yes: 0)	-.295	.193	-.335	.198
Reference group: Class 2(high-level unchanged group)				
Variable	Class 1		Class 3	
	Estimate	S.E.	Estimate	S.E.
Gender(male: 0)	-.405*	.206	-.676*	.266
Age	.013	.011	-.001	.014
Severity of disability(significant: 0)	-.168	.254	-.629*	.308
Multiple disabilities(yes: 0)	.325	.701	.489	.742
Education	-.428*	.168	-1.144***	.227
Socioeconomic status	-.181	.163	-.453	.236
Economic activeness(employed: 0)	.844***	.251	2.65***	.398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cheme(yes: 0)	-.65	.424	-.988*	.46
Existence of spouses(no: 0)	-.584*	.227	-1.362***	.308
Discrimination experience	.707***	.14	1.099***	.176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592***	.169	-1.435***	.205
Existence of helper(yes: 0)	.295	.193	-.04	.267

* $p < .05$, ** $p < .01$, *** $p < .001$

정도가 적을수록 잠재계층 1보다는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둘째,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를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남성이고, 중증 장애인이며,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미취업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가 없고,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적을수록 잠재계층 2보다는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3.4 잠재계층에 따른 장애수용 변화 양상

다집단 선형성장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잠재계층에 따라 장애수용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Table 6 참조). 장애수용 또한 1차(2016년)~4차(2019년) 4개 시점에서 무변화, 이차선형변화보다 선형변화가 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집단 선형성장모형 분석을 하였다.

장애수용의 초기값은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다. 잠재계층 1은 4개 시점 동안 장애수용 정도의 변화가 없는 반면, 잠재계층 2는 선형변화율이 감소하는 패턴, 잠재계층 3은 선형변화율이 증가하는 패턴으로 확인되었다. 잠재계층 2는 매년 평균적으로 -.036 만큼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며, 잠재계층 3은 매년 평균적으로 .033 만큼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multiple group analysis

Parameter	Estimate		
	Class 1	Class 2	Class 3
Intercept	3.066***	3.535***	2.498***
Linear	-.005	-.036***	.033**

* $p < .05$, ** $p < .01$, *** $p < .001$

3.5 잠재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삶의 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BCH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Table 7에 제시되어 있듯이,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순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omparisons across the three-class profiles on life satisfaction

Variables	Latent classes	M	S.E.	χ^2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Life satisfaction	Class 1	3.410	.015	440.522*** (3<1<2)
	Class 2	3.734	.024	
	Class 3	2.671	.046	

※ Class 1: mid-level increased group, Class 2: high-level unchanged group, Class 3: low-level increased group

* $p < .05$, ** $p < .01$, *** $p <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장애인(만 25세 이상)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및 장애수용,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4년 동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선형변화모형에 기초했을 때 변화 궤적은 3개의 개별적인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1인 중수준 증가 집단(2,419명, 68.8%)은 4년 동안 계속해서 중간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이며,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잠재계층 2인 상수준 무변화형 집단(689명, 19.6%)은 4년 동안 계속해서 제일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이지만, 변화가 없는 특징이 있다. 잠재계층 3인 하수준 증가형 집단(409명, 11.6%)은 4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이며,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본 연구는 성인 장애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패턴으로 자아존중감 변화 과정을 경험하고,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 분류에 인구사회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관계적 변인의 하위 요소 중 성별, 장애 정도, 학력, 경제활동상태, 배우자 유무, 차별경험,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성별 효과를 보면, 남성일 때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3(하수준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5,

21]를 지지하는 것으로,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의 변화 궤적을 보이는 잠재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애 정도의 효과를 보면, 경증 장애보다는 중증 장애일 때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는 장애 등급이 낮을수록[12]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경증 장애보다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학력의 효과를 보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는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18]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상태의 효과를 보면, 미취업자가 취업자와 비교하여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효과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대상자가 아닌 경우와 비교하여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는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일 때[22],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닐 때[23], 장애인 가구원의 자산이 많을수록[21]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 계속해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의 변화 궤적을 보이는 잠재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성인 장애인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배우자 유무의 효과를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효과를 보면, 차별경험 정도가 많을수록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사회활동 참여 정도의 효과를 보면, 사회활동 참여가 적을수록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는 차별경험[5, 10, 18], 사회 및 여가참여[9, 13, 19], 사회적지지[20], 배우자 유무[12, 21]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을 발달하는 데 있어 자기와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되,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부정적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관계측정이론(Sociometer Theory)'에 따르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반복적인 사회적 거절 및 비판에 부리를 두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수용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관계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수용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8, 16]을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성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과 장애수용 변화 양상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용의 초깃값과 4년 동안의 장애수용 수준이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 잠재계층 1(중수준 증가 집단), 잠재계층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순으로 높았다. Moksnes 외[29]에 따르면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더 높은 부정적인 정서 및 부적응적 행동을 보인다. 유사하게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끄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잠재계층 간에 삶의 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2(상수준 무변화형 집단), 1(중수준 증가 집단), 3(하수준 증가형 집단)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경향성이 있으며[14], 사람들과 더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30].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완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긍정적 정서와 적응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8].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한 다수의 선행연구와 달리, 성장혼합모형에 기초하여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다른 변화궤적을 보이는 잠재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성인 장애인

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는 실제적 의미가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관계적 변인을 고려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 변화 궤적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장애수용, 삶의 만족도 간 밀접한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며, 어떤 변인이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U. Orth, R. W. Robins,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23, No.5, pp.381-387, 2014.
DOI: <https://doi.org/10.1177/0963721414547414>
- [2] J. W. Hwang, S. H. You,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happiness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20, No.2, pp.191-222, 2013.
- [3] S. H. Choi, J. S. Hur,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spect, self-efficienc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ability & Employment*, Vol.29, No.4, pp.69-95, 2019.
DOI: <https://doi.org/10.15707/disem.2019.29.4.004>
- [4] S. Y. Lee, J. S. Lee,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entally ill people in mental care facil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3, pp.231-239, 2015.
DOI: <https://doi.org/10.14400/JDC.2015.13.3.231>
- [5] H. S. Park, H. T. Yang,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wage workers on job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22, pp.67-84, 2013.
- [6] M. L. Oh, K. S. Kim,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women with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No.50, pp.155-179, 2015.
DOI: <https://doi.org/10.16975/kifsw.2015..50.006>
- [7] E. M. Yeon, H. S. Choi,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mployees' big five personality traits, self-esteem,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3, pp.306-317,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3.306>
- [8] M. R. Leary, E. S. Tambor, S. K. Terdal, D. L. Downs,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8, No.3, pp.518-530, 199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8.3.518>
- [9] M. S. Ko, "The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on daily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ith disabilities: Mediating effect of self-rated health status and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9, No.3, pp.221-232, 2015.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5.9.3.221>
- [10] H. C. Cho, M. S. Yoon,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mediated with self-esteem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severely disabled people: Group comparison of employment and disability typ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33, pp.67-90, 2016.
- [11] S. W. Jeong, "The prospective effect of acceptance of disability on self-esteem of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s", *Disability & Employment*, Vol.24, No.1, pp.167-197, 2014.
- [12] S. J. Choi, J. M. Kwon, K. I. Lee, "Effect of different levels of a disability to the self-esteem of people with a disability who work as a part-time employe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Disability & Employment*, Vol.24, No.3, pp.147-168, 2014.
- [13] S. W. Kim, M. S. Eom, H. M. Oh, H. B. Yu, Y. H. Lee, J. D. Cho, "The mediator role of self esteem in the pathways from job satisfaction and leisure activities to acceptance of disability in workers with visual impairment",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43, pp.133-155, 2019.
DOI: <https://doi.org/10.22779/kadw.2019.43.43.133>
- [14] U. Orth, R. W. Robins, K. F. Widaman, "Life-span development of self-esteem and its effects on important life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02, No.6, pp.1271-1288, 2012.
DOI: <https://doi.org/10.1037/a0025558>
- [15] U. Orth, R. Y. Erol, E. C. Luciano, "Development of self-esteem from age 4 to 94 years: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Vol.144, No.10, pp.1045-1080, 2018.
- [16] M. R. Leary, Sociometer theory, In P. A. M. Van Lange,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pp.151-159)", Sage Publications Ltd, 2012.
DOI: <https://doi.org/10.4135/9781446249222.n33>

- [17] S. Thomaes, A. H. A. Reijntjes, B. Orobio de Castro, B. J. Bushman, A. Poorthuis, M. J. Telch, "I like me if you like me: On the interpersonal modulation and regulation of preadolescents' state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Vol.81, No.3, pp.811-825, 2010.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0.01435.x>
- [18] J. H. Im,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mployees with visual impairm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36, No.4, pp.211-229, 2020.
- [19] I. G. Jeong, "Eco-systemic analysis which affects the quality of life in people with cerebral palsy",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18, No.1, pp.369-406, 2017.
DOI: <https://doi.org/10.15818/ihss.2017.18.1.369>
- [20] J. T. Kim, E. C. Seo, T. W. Kim, "Verification of health promotion motivation model: Focused on pre-diagnostic scales of precede model",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Vol.24, No.4, pp.73-88, 2016.
- [21] J. Y. Kim, C. K. Han, "Path analysis between factors effect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Vol.26, No.3, pp.5-30, 2016.
DOI: <https://doi.org/10.15707/disem.2016.26.3.001>
- [22] M. S. Ko, D. J. Kim, "The effects of the economic activity status of the female disabled on their daily life satisfaction leve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Disability & Employment*, Vol.24, No.2, pp.137-164, 2014.
- [23] M. J. Jeong, S. G. Le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health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Vol.17, No.6, pp.551-560,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6.551>
- [24] <https://edi.lead.or.kr/Contents.do?cmd= 051A&mid=213>
- [25]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6] S. B. Kaiser, S. B. Wingate, C. M. Freeman, J. L. Chandler, "Acceptance of physical disability and attitudes toward personal appearance",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32, No.1, pp.51-58, 1987.
- [27] T. Asparouhov, B. Muthén,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21, No.3, pp.329-341, 2014.
DOI: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 [28] H. J. Park, J. O. Kim, Y. H. Son, "The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trend of the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ce and its predictor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6, No.4, pp.105-127, 2015.
- [29] U. K. Moksnes, I. E. O. Moljord, G. A. Espnes, D. G. Byrne,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emotional

states in adolescents: The role of gender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9, No.5, pp.430-435, 2010.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0.04.012>

- [30] R. F. Baumeister, J. D. Campbell, J. I. Krueger, K. D. Vohs,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Vol.4, No.1, pp.1-44, 2003.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